



3년째 적자... 차입으로 버티는 제주의료원

의료손실 매년 늘어 지난해 102억·차입금 42억까지
올해 30억원 추가 차입... “도 지도·감독 소홀” 지적

제주의료원이 3년 연속 적자 상태에 빠진 가운데 고금리 차입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메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6년 제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경고 1, 주의 15, 시정 4, 개선 4, 통보 6건 등 총 30

건의 행정상 조치와 훈계 2명, 주의 6명 등 총 8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의료원의 의료이익은 2022년 16억원 흑자에서 2023년 81억원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24년 95억원, 2025년에는 10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도 최근 3년간 매년 50억~60억원대로 이어졌다. 반면 운영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부 차입은 2026년 3월 감사일 기

준 42억원까지 늘었고 평균 차입금리는 2021년 연 2.89%에서 2025년 5.3%로 뛰었다. 제주의료원은 2026년에도 약 30억원을 추가로 빌릴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상환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료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 2025년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감사위는 이 같은 재정 위기의 책임을 제주의료원뿐 아니라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에도 물었다. 제주도가 부채 해소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도하거나 계획 미이행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도지사와 제주의료원 장에게 명확한 차입금 상환 일정을 담은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을 세우도록 통보했다. 제주도는 ‘도·지방의료 재정안정화 공동전담 TF’를 통해 이행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료원은 필수·응급의료와 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구조적 적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도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호르무즈 파병 검토 중단을”
시민단체·정당 등 규탄 목소리

정부가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이하 평화연대)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략전쟁 지원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평화연대는 “비전투 자산이라고 해도 전쟁 중인 미군에 군수지원과 감시·정찰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 작전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 4개 단체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동맹국에게 압박하는 호르무즈 해협 수중 기뢰 제거 작업에 한국이 최일선이 될 것임이 역력하다”며 “한국 군함을 보내는 제주는 특히 이란의 보복 표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에너지와 공급망 위기까지 불러들일 위험천만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막바지 물놀이 즐기는 피서객들 7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막바지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강혁만기자

추석 앞두고 인플루엔자·코로나19 확산

인플루엔자 전년보다 약 10주 일찍 검출

이달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추석 명절을 앞둔 가운데 도내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인플루엔자는 8월 첫째 주(32주차, 8월 2~8일)부터 검출되기 시작해 2026~2027 절기가 시작된 36주차(8월 30일~9월 5일)에는 검출률이 36.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7월부터 10% 안

팍을 오르내리다 36주차에 30.3%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12.3%, 코로나19 11.7%인 전국 검출률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플루엔자는 7~12세 아동(42.9%)과 0~6세 영유아(33.3%)에서, 코로나19는 19~49세 성인층(30.0%)과 13~18세 청소년(25.0%)에서 주로 검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플루엔자가 42주차에 처음 검출된 것과 비교하면 올

해는 약 10주 이른 시기에 나타났으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추석 연휴가 이어짐에 따라 사람 간 접촉과 이동이 늘어나 발생 동향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하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시기를 확인해 미리 접종받는 것이 권장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협력병원, 질병관리청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수행하고 도내 발생 동향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사거리서 교통사고... 70대 운전자 사망

서귀포의 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7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7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서귀포시 서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60대 여성 B씨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전봇대에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며, 동승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모두 직진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서귀포항서 60대 해상 추락... 심정지 이송

서귀포 해상에서 60대 선원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8분쯤 서귀포항 4부두 해상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신고 접수 2분여 만에 A씨를 구조했다.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선박에서 육상으로 넘어오던 중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유리기자

추석 앞뒤 벌초 행렬... 예초기 사고 속출

지난 주말 벌초작업 중 안전 사고 7건 발생

최근 5년간 178건... 소방, 안전사고 주의보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 행렬이 시작되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벌초 작업 중 예초기 사용에 따른 사고가 총 7건 접수됐다.

전날 오전 7시14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70대 남성이 왼쪽 발목을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오전 9시59분쯤 제주시 한경면에서는 50대 남성이 오른쪽 종아리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오전 8시38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50대 남성이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10시13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에서도 20대 남성이 왼쪽 발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후 1시19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60대 남성이 왼쪽 허벅지에 중상을 입었다.

같은 날 오후 1시50분쯤 제주시 한경면에서는 60대 남성이 예초기 작업 중 왼쪽 손등을 다쳐 병원 이송됐다. 오후 4시22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도 30대 남성이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 또 이날 오전 10시22분쯤에는 예초 작업 중 70대 남성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1시간여 만에 가족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벌초 작업 중 안전사고는 총 178건이다. 이중 예초기 등 농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사고가 78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소방은 지난달 21일부터 벌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벌초 사고를 막기 위해선 우선 예초기나 낫 등 장비를 사용할 때 장갑과 보안경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 중에는 주변 사람과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배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해야 한다. 출혈이 어느 정도 멈추면 물로 상처 부위를 가볍게 씻는다. 상처가 깊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 신체 일부가 절단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양유리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 안파고정판 + 안파밴드 =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호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점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점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굴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